

자 량 스 런

안 전 인 제8호

두산건설(주) 용인신갈아파트  
기성호 과장



작업자는 인간공학이 접목된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인간공학적 측면을 위해 힘쓰는 안전관리자

온통 주변의 푸른 숲과 따뜻한 햇살이 상쾌하기만 한 이곳 용인 신갈에서 이달의 자랑스런 안전인으로 선정된 기성호 과장을 만날 수 있었다.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학자나 선생님 같은 분위기였다. 나중에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학교 강단에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틈틈히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2002년도 산재 예방 유공 정부 산업포장상 주인공이기도 한 기성호 과장은 「안전관리자를 대표해서 받은 상인 만큼 안전관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포부를 보여줬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이란 작업자가 안전을 잘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안전성의 확보와 인간공학이 접목된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안전모의 땀흡수대, 턱끈, 안전난간 연결대 개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개발 동기에서도 기성호 과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근로자를 대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최근들어 기성호 과장은 인간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 한다. 제조업에서는 인간공학이 오래전 부터 연구되어 왔는데 반해 건설업은 그렇지 못하다. 건설업에서의 모든 시설이 인간공학이 고려되어 설치되어지고 개발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이유이다.

이밖에 안전관리자의 위상에 대해 기성호 과장의 의지를 들었다. 요즘처럼 안전관리자의 비중이 적어지는 열악한 실정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치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된 안전관리자 협의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성호 과장 역시 지금 현재 기흥지구 안전관리자 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끊임없이 안전관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힘쓰고 있다.

끝으로 항상 노력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후배들의 기억에 길이 남길 바라며 강당에서 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허근기자>